

#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 계승 연구: 경영승계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임 영 언\*\*

(e-mail: yimye@hanmail.net)

---

## 目次

---

- I. 문제제기
  - II. 기존연구 고찰 및 연구과제
  - III. 연구방법
  - IV.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 계승관련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 V. 결론
- 

## I. 연구목적

1945년 해방 전후 일본에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한 재일동포는 해방이후 ‘재일한국·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교포’, ‘재일’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렸다. 이에 따라 재일동포라는 용어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중첩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동포를 총칭하여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코리안은 이주의 발생적 요인에 따라 식민지시대의 종언으로 생겨난 올드커머(1945년 전후), 글로벌시대(1980년 전후)의 개시와 더불어 시작된 뉴커머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방 전후 일본에 정착하기 시작한 약 60만명의 재일코리안은 식민지 출신이라는 민족차별과 직업차별에 맞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틈새산업의 소규모영세자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B00009).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다. 재일코리안들은 일본인들이 꺼리는 직종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결과, 파칭코산업, 야끼니쿠산업, 토목건축업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여 재일코리안들의 3대 민족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소수민족기업(Minority)의 전형이었던 재일코리안 기업의 대부분은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맞물려 불황의 늪에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먼저 재일코리안 기업의 3대 민족산업 중의 하나인 파칭코산업에 대해 살펴보자.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재일코리안의 민족기간산업에 속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일본 대기업의 참여로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이 80-90%를 차지했던 파칭코산업은 글로벌시장 경제체제 이후 일본 내 시장점유율이 거의 50%이하로 감소되었다. 그 이유는 파칭코산업이 일본 소도시외곽지역이나 농촌에 진출한 결과, 토지 값의 하락과 지역인구감소,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고객층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쇄하는 곳이 속출하였기 때문이다. 한때 일본에서 재일코리안 기업의 민족산업으로 자칭하던 파칭코산업은 경기불황, 일본대기업의 진출로 지방의 중소기업체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야끼니쿠산업(일본식 불고기산업)은 종래 올드커머의 민족산업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생존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때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던 야끼니쿠산업은 2000년대 전세계적인 광우병(BSE) 파동으로 소의 혀 요리, 생간요리, 생고기비빔밥 금지(배탈이나 사망사건 발생 이후)로 가정집이나 자기 식당을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의 경우에만 가족경영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 그것도 예전에 비해 전체 비율 중 약 20-30%정도만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일본경제 버블기에 번창했던 야끼니쿠산업은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뉴커머의 일본 진출과 한류열풍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목건축업의 경우, 재일코리안 기업들은 순수 건축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일본기업의 하청업체로서 도로공사나 건물해체공사, 산업폐기물재생업 등에서 부를 축적해왔다. 1990년대 전후까지만 해도 재일코리안들이 많이 종사하던 업종의 하나였지만 불황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토목건축업은 종래 일본인들이 꺼려하던 3D산업 중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경제불황으로 일본인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게 됨에 따라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밖에 재일코리안들이 경영하는 사채고리대금업의 경우 과거 틈새산업의 하나로 많은 재일코리안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한때 사채고리대금업으로 상당히 부를 축적한 재일코리안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였지만 지금은 일본정부의 강제금리인하정책으로 금리가 20% 이하인 19.5%선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80-90%정도의 고금리시대에 번창했던 사채업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과 같이 글로벌시대 도래와 함께 1990년대 이후 경제불황과 민족기업의 쇠퇴, 그리고 재일코리안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재일코리안 기업의 세대교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재일코리안 사회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재일코리안 2세-3세 기업가들이 기업일선현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재일코리안 사회내부도 급변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말 일본의 버블붕괴와 더불어 조선은행의 파탄이나 민족금융기관의 파산은 재일코리안 기업이나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경제의 버블붕괴는 일본 산업구조의 전환과 더불어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재일코리안 기업은 현재 일본의 경제불황과 고령화로 인한 세대교체는 과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시대 재일코리안 사회의 고령화로 인하여 세대교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승계 실태를 고찰하고 후계자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재일코리안 민족기업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 II. 기존문헌 고찰 및 연구과제

진술한 바와 같이 재일코리안 기업은 3대산업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파칭코산업이었다. 파칭코(pachinko) 업계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은 ‘마루한·코퍼레이션’(2005년 업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1조엔 달성, 2006년 일본전국 200개 점포 오픈 달성)회장의 한창우(韓昌佑), 파칭코(pachinko)기계 제조업체의 대표 ‘주식회사 평화’의 정동필(나카지마 켄키치(中島健吉)), 교토(京都)를 대표하는 택시 회사인 MK택시의 유봉식(아오키 사다오(青木定雄)), 인터넷·모바일 사업과 일본 프로야구단의 후쿠오카 다이에 호크스를 인수한 일본 ‘소프트뱅크(soft bank)’의 대표, 손정의(孫正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이들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이 일본에서 기업을 꾸준히 성장시키고 생명력을 유지해 온 비결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①일본국적 취득(일본귀화자) ②일본 국내시장 및 글로벌시장으로 비즈니스 확대 전개 ③한국계 일본인으로서 일본 사회의 정착 지향과 글로벌화 된 개인으로서의 활약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sup>2)</sup>

일본에서 틈새산업으로 성공한 재일코리안 기업들이 일본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이다. 한국정부는 외자도입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재일코리안 기업의 모국투자를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투자정책의 일환

1) 梁京姬(2009) 「在日企業家が韓國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國朝鮮研究』 第9号, pp.16-30.

2) 앞의 논문, 梁京姬(2009), p. 17참조.

으로 기업의 행정절차에서부터 업종·투자 금액 및 투자 비율 등에서 외국인이나 재일동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모국투자의 환경정비에 노력했다.<sup>3)</sup>

재일코리안 기업들의 모국투자는 1970년대 모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한국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 수립 이후 재일코리안에 의한 모국투자 총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자 총액이 9억 3,700만 달러 정도였으니 재일코리안에 의한 모국투자는 외국인투자의 총액을 능가하는 자본이었다.<sup>4)</sup> 재일코리안 기업의 투자협력 사업분야는 섬유, 기계, 전자, 전기, 금속 제조업 분야는 물론이고 호텔, 금융과 같은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한국진출은 모국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선진경영기법을 모국기업에 전수함으로써 모국경제의 근대화에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sup>5)</sup>

재일코리안 기업에 관한 기존연구는 한국에서 200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왔다. 2005년도를 기점으로 살펴보면, 2005년도 이전에는 주로 일본에서 서용달(1987), 오규상(1992), 박일(2002), 오민학·김철수(2002), 하명생(1996, 1998, 2003), 양경희(2009) 등 재일코리안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는 한국 연구자들이 재일코리안 기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자영업자의 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기업가정신,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경영활동과 네트워크 등으로 점차 연구내용이 확대되어 왔다.

먼저 재일코리안 자영업에 관한 연구는 백형엽(2006)의 ‘재일동포 자영업체의 경영실태에 관한 연구’가 있고 조현미(2007)의 ‘재일한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직업과 민족간의 유대관계’라는 연구가 있다. 이들 두 연구 모두가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재일코리안 자영업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음은 재일제주인 출신 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고희명(2005, 2006, 2009, 2010, 2011)이 재일제주인의 상공업 활동,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재일제주인 출신 기업가 등 재일제주인 기업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오고 있다.

주로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기업가정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해 온 학자로는 김태영(2005, 2006, 2007)의 연구논문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대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네트워크 중심의 연구로는 임영언(2006, 2007, 2008, 2011)의 논문이 있다.

3) 임영언(2009) 「재일한인 기업가와 모국」 『일본 한인의 역사(상)』 pp.312-343.

4) 在日本大韓民國民團(1997) 『民團五十年史』 民團50年史編纂委員會, 847-857.

5) 재외동포재단(2008) 『모국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年 足跡』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pp.197-222.

이상과 같이 재일코리안 기업연구는 과거에는 주로 재일코리안 출신 연구자들이 주도해왔지만 최근에는 한국출신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승계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연구는 도쿄청상(1989), 청년상공인연합회(1982)가 동포상공인의 의식과 실태차원에서 처음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sup>6)</sup> 이후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 계승에 관한 연구는 도쿄청상이 198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가 유일하다. 도쿄청상은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전국 23개 지구의 청상을 중심으로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전국적인 실태와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만 해도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청상회원의 활발한 활동, 재일코리안과 각지 민족금융기관의 협력으로 대규모조사가 가능했다. 이 조사는 일본전국 재일코리안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3,199부의 조사표가 회수된 최초이자 마지막 대규모조사이기도 하다. 이들 중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응답자 수만 1,642부에 달했다.<sup>7)</sup> 조사결과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 결정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결정 못했다’가 52.2%, ‘결정했다’가 38.1%, 무응답이 9.7%였다. 기업가가 후계자를 이미 선택하고 있는 경우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90.4%, ‘기업 내 유능한 인물’이 4.3%, ‘친척’이 3.7%, ‘무응답’이 1.5%였다고 보고하였다.<sup>8)</sup>

이 연구는 1989년 조사 이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먼저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 계승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후계자계승 결정요인과 모국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재일코리안 기업의 기업계승이 성별, 연령별, 출신지역별, 거주연수별, 직업별, 학력별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후계자계승과 모국투자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경영승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과 모국(해외)투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6) 東京韓國青年商工會(1988) 『靑商：望ましい未來を目指して』10周年記念誌編集委員會。

7) 在日韓國青年連合會(1989) 『在日韓國商工人の現状と課題をさぐる—靑商連合會アンケート調査結果から—』育英出版社, pp.28-43.

8) 在日韓國青年商工人連合會(1995) 『靑商：豊かな地域社會の創造を目指して』設立15周年記念誌。

###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올드커머 및 뉴커머)을 모집단으로 하여 비확률표본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동경에 위치한 재일한국상공회의소와 재일한국인연합회 등지에 부탁하여 기업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설문조사표는 한국어와 일본어 두 종류를 준비하여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184부의 설문지를 확보하였다. 총 195부의 설문지를 확보하였으나 그 중 결측값이 지나치게 많거나 응답자의 답변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8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1989년도 조사에서 기업가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60세 이상이 9.7%, 50대 17.2%, 30세~49세 65.2%, 29세이하 7.5%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86.3%, 여성이 9.4%, 무응답이 4.3%로 기업가 10명 중 1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구성별 분포를 보면 자신이 창업자인 경우가 58.6%, 물려받은 경우가 41.4%로 기업가 10명 중 4명이 2대째 기업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이 10.9%, 50대 21.2%, 40대 29.9%, 30대 26.6%, 20세 이하 11.4%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4.7%, 여성이 35.3%로 과거조사에 비해 여성기업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1>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 계승에 관한 빈도분석

질문항목		빈도(%)	질문항목		빈도(%)
기업 계승 정도	함께 일함	<b>77(65.8)</b>	업 종 변 경 이유	후계자 없음	8(7.0)
	고문역할	21(17.9)		장래성 없음	34(29.8)
	은퇴	13(11.1)		경영이 힘들	<b>40(35.1)</b>
	사망	6(5.1)		자본력 부족	10(8.8)
계승상황	자신이	34(50.0)	업 종 계 속 여부	기타	22(19.3)
	어쩔 수 없이	8(11.8)		전혀 그렇지 않 음	36(31.0)
	알게 모르게	26(38.2)		그렇지 않음	35(30.2)
계승 시 어려움	전문지식	29(25.0)	모 국 투 자 경험	보통	33(28.4)
	인간적 문제	<b>49(42.2)</b>		약간 그렇다	7(6.0)
	금융기관 신뢰	19(16.4)		매우 그렇다	5(4.3)
	점포 노후화	14(12.1)		투자 중	7(10.3)
	기타	5(4.3)		투자 경험 있음	8(11.8)
후 계 자 결정여부	결정함	20(29.4)	자 경험	조건에 따라	<b>17(25.0)</b>
	결정 못함	48(70.6)		생각없음	23(33.8)

후계자	자녀	<b>46(40.0)</b>	해 외 투 자예상	전혀 생각없음	13(19.1)	
	친척	8(7.0)		투자 중	7(10.3)	
	기업 내 인물	28(24.3)		투자 경험 있음	조건에 따라	<b>17(25.0)</b>
	기타	33(28.7)				
다 각 적 경영	전혀 고려안함	17(15.0)	전혀 생각없음		11(16.2)	
	고려안함	14(12.4)				
	보통	10(8.8)				
	조금 고려	<b>38(33.6)</b>				
	매우 고려	34(30.1)				

<표 1>은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989년도 조사와 2012년도 본조사의 후계자계승에 관한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9년도 조사에서 향후 기업의 계속 여부를 묻는 폐업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계속할 작정이다’ 51.6%, ‘자신의 대에서 그만두겠다.’ 22.0%, ‘잘 모르겠다.’ 24.7%, ‘무응답’ 1.7%였다. 이번조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31.0%, ‘그렇지 않다’ 30.2%, ‘보통’ 28.4%,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10.3%였다. 과거조사에 비해 기업계속여부에서는 향후 불투명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모국투자나 해외투자 여부에 대한 질문은 과거조사에서 ‘모국투자를 하고 있다’가 6.3%,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가 약 2.6%로 총 8.9%이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투자 중이다’ 10.3%, ‘투자경험이 있다’ 13.2%로 총 23.5%가 과거에 비해 해외투자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세대교체 정도를 살펴보면, 과거조사에서는 ‘자신의 세대에서 창업했다’고 응답한 기업가가 약 60%, ‘부모의 사업을 계승한 세대’가 35%, ‘형제나 기타 친척으로부터 기업계승’이 5%, ‘친족이외 사람으로부터 기업계승’이 2.3%이었다. 기업의 세대교체정도를 살펴보면 현역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가 37.2%, ‘제일선에서 물러나 고문역할을 하고 있다’가 23.1%, ‘은퇴하여 일하고 있지 않다’가 9.2%, ‘사망’이 23.1%, ‘무응답’이 7.5%였다. 기업계승의 상황은 ‘자신으로부터 적극적으로’ 44.5%, ‘어쩔 수 없어서’ 20.7%, ‘그저 그렇게’ 23.3%, ‘무응답’ 11.4%였다. 이번조사결과에서는 기업계승의 정도에서는 ‘함께 일하고 있다’ 65.8%, ‘고문역할을 하고 있다’ 17.9%, ‘은퇴했다’ 11.1%, ‘사망’ 5.1%순이었다. 기업계승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으로부터 적극적으로’ 50.0%, ‘어쩔 수 없어서’ 11.8%, ‘알게 모르게’ 38.2%이었다. 기업계승정도에 관한 이번 조사결과는 기업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비율이 절반 가량 높아졌고 남들이 알게 모르게 서서히 경영승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기업계승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거조사에서 ‘전문지식

의 습득' 31.4%, '종업원의 신뢰 등 인적문제' 30.3%,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신뢰' 26.2%, '설비점포의 노후화' 25.6%였다. 본 조사결과에서는 기업가들의 '인간적인 신뢰'가 42.2%, '전문지식 습득' 25.0%, '금융기관 신뢰' 16.4%, '점포 노후화' 12.1%로 과거의 전문지식습득보다는 인적자원 확보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 결정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과거 조사결과에서 '결정 못했다'가 52.2%, '결정했다'가 38.1%, 무응답이 9.7%였다. 기업가가 후계자를 이미 선택하고 있는 경우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90.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기업 내 유능한 인물'이 4.3%, '친척'이 3.7%, '무응답'이 1.5%였다. 본 조사결과 후계자 결정여부에 대하여 '결정했다' 29.4%, '결정 못했다' 70.6%로 과거에 비해 결정했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20년 전의 조사에 비해 현재 일본경제불황으로 기업의 계속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재일코리안 기업가가 현재 기업을 그만두려고 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조사에서는 '자녀가 희망하지 않거나 후계자가 없다' 43.5%, '업계에 장래성이 없다' 39.6%, '경영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 26.9%, '현재 자본력으로 발전이 없다' 15.2%였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다각적 경영 정도에 대해서는 1업종만 종사하는 기업가가 약 80%, 타 업종으로의 진출의욕은 전체 약 80%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까운 장래에 진출하고 싶다' 28.4%, '가능하다면 진출하고 싶다' 50.9%, '진출할 예정이 없다' 18.9%, '무응답'이 1.8%이었다. 과거 조사결과, 기업의 업종 변경이유에 대하여 과거조사에서 후계자가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경영이 힘들다' 35.1%, '장래성이 없다' 29.8%로 나타나 과거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이 기업을 물려줄 후계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금은 기업경영 그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모국투자에 대한 의향을 질문한 결과 과거조사에서는 '조건에 따라 생각해 보겠다' 26.7%, '모국에 대한 투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35.3%, '잘 모르겠다.' 24.9%, '현재 모국에 투자하고 있다' 6.3%, '모국에서 사업을 한 적이 있다'가 4.4%, '무응답'이 2.3%이었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생각해 보겠다.' 21.9%, '전혀 투자할 생각이 없다' 41.5%, '잘 모르겠다.' 24.5%, '검토하고 있다' 4.4%,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 2.6%, '무응답' 5.1%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조건에 따라 투자를 생각해 보겠다'가 25.0%로 과거와 비슷했으나 모국투자 중이거나 투자경험에 대한 비율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25.0%로 과거 21.9%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향후 해외투



자계획에 대해서는 해외투자 중이거나 투자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5%로 과거 7.0%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IV.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 계승관련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 1. 재일코리안 기업의 인구통계학적요인과 후계자 계승정도의 차이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표 2>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성별, 연령별, 출생지별, 거주연수별, 직업별, 학력별로 T검정 및 ANOVA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출생지별, 학력이 자영업계승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정도(진척도)를 살펴보면 남성이면서 출생지가 한국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재일코리안 2세나 3세에게 기업을 계승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재일코리안 기업이 이미 후계자를 결정했는지, 즉 기업의 후계자결정 여부에서는 성별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일수록 이미 후계자를 결정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남자>여자). 이것은 아직까지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대부분이 남성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며 아직까지 재일코리안 1세들에게 존재하는 유교적 가부장적 제도의 영향으로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도 남성일수록 후계자계승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재일코리안 기업의 인구통계학적요인과 후계자계승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자	97	1.45	.84	-2.825	0.006
	여자	20	2.05	.94		
연령	20대 이하	6	1.83	.75	1.275	0.284
	30대	18	1.17	.71		
	40대	42	1.64	.88		
	50대	32	1.66	.97		
	60대 이상	19	1.47	.90		
출생지	일본	41	1.49	.81	-3.973	0.000
	한국	76	1.59	.93		
거주연수	10년 이내	10	1.50	1.08	.641	0.590
	10~19년	37	1.46	.87		
	20~29년	31	1.74	.93		
	30년이상	39	1.51	.82		

직업	관리직	94	1.53	.86	.202	0.895
	전문직/사무직	8	1.75	1.16		
	노동	6	1.50	1.22		
	서비스/기타	9	1.67	.71		
학력	전문대이하	21	1.90	1.04	3.602	0.030
	대학	77	1.40	.75		
	대학원	19	1.79	1.08		

P<0.05 일 경우 유의미

## 2. 후계자계승과 모국투자의 상관분석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과 모국(해외)투자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표 3>은 재일코리안 기업의 모국투자경험과 후계자계승사이의 상관분석을 나타낸 표이다. 전체적으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투자를 예상하고 있는 기업가의 경우 모국투자의 경험이 있으며, 또한 기업계속여부와 자영업계승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불황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국투자를 통해 향후 기업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일코리안 기업가가 다각적 경영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표 3> 재일코리안 기업의 모국투자경험과 후계자 계승의 상관관계 분석

	자영업계 승정도	후계자결 정여부	매출액 예상	기업 계속 여부	다각적 경영	모국투자 경험	해외투자 예상
자영업계 승정도	1	<b>-.240</b>	-.046	.102	-.192	<b>.218</b>	-.087
후계자결 정여부		1	.126	<b>-.372</b>	.110	-.025	.114
매출액예 상			1	<b>-.270</b>	<b>.296</b>	-.121	-.198
기업계속 여부				1	-.166	<b>.271</b>	.184
다각적 경영					1	<b>-.254</b>	<b>-.255</b>
모국투자 경험						1	<b>.475</b>
해외투자 예상							1

반대로 일본국내에서 다각적 경영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가일수록 모국투자나 해외투자에 부정적이었으며 기업의 계속의지가 강한 기업가일수록 후계자 결정이나 매출액예상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계자계승의 의지

가 강한 기업가일수록 후계자결정에 신중하여 아직까지 후계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모국투자경험이 있는 기업가의 경우 해외투자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r=0.475$ ), 기업의 후계자를 결정한 기업가일수록 현재 기업을 자신의 대에서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372$ ). 또한 재일코리안 기업가는 최근 일본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의 다각적 경영을 고려하는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r=0.296$ ).

즉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 한류상품이라는 한 상품에 재일코리안 기업들이 경영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기업을 자신의 대에서 그만둘 생각이 없는 기업가일수록 매출액이 약간 증가할거라 판단하고 있었다( $r=-.270$ ). 그러나 재일코리안 기업가가 기업계승에 적극적일수록 기업의 후계자를 결정을 여전히 미루고 있는 경향이 있어 후계자 결정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r=-0.240$ ).

### 3.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 계승 관련 회귀분석

다음은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표 4>의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자영업계승정도의 회귀분석결과 자영업 계승정도는 행복도, 인적사항(성별, 영업연수, 태어난 곳, 거주기간), 한류영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F=0.716, P>0.05$ ). 그러나 재일코리안 기업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후계자결정여부의 회귀분석 결과, 후계자 결정여부는 기업가의 출생지(태어난 곳), 일본에서의 거주기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재일코리안 기업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후계자 결정여부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885	.696		1.271	.209
행복1	-.026	.079	-.044	-.324	.747
행복2	-.052	.071	-.126	-.734	.466
행복3	.058	.087	.121	.668	.507
행복4	.106	.078	.214	1.364	.178
성별	-.305	.199	-.224	-1.530	.132
영업연수	.005	.004	.137	1.014	.315
태어난 곳	-.523	.165	-.554	-3.164	.003
거주기간	-.012	.004	-.516	-2.941	.005

이미지변화	-.136	.071	-.396	-1.911	.061
재일코리안변 화	-.031	.131	-.072	-.234	.816
관심도변화	.138	.099	.342	1.403	.166
의식변화	.050	.118	.065	.427	.671
한류영향1	.027	.115	.032	.237	.813
한류영향2	-.110	.101	-.179	-1.085	.283

F = 2.360 (P=0.013), F<sup>2</sup> = 0.384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후계자 결정여부는 행복도, 한류문화 영향과 무관하지만 응답자의 인적사항인 태어난 곳과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설명력은 약 38.4%로 나타났다(F=2.360, P<0.05, R<sup>2</sup>=0.384). 표준화 계수를 보면 태어난 곳(-0.554), 거주기간(-0.516)으로 후계자 결정여부는 응답자의 출생 장소가 거주기간보다 영향을 더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느냐가 후계자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가보다는 출생지, 즉 한국에서 태어난 기업가일수록 후계자결정에 민감하다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일본에서 한류영향에 의한 재일코리안 기업의 매출액 증가 예상에 관한 응답비율은 한류문화의 영향에 관한 응답결과와 일정부분 상관성이 존재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분석결과에서는 한류문화, 행복도 그리고 응답자의 인적사항은 재일코리안 기업의 매출액 예상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F=1.307, P>0.05). 이러한 결과는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대부분이 한류와 무관한 사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재일코리안 사회의 정보격차에 의한 글로벌 트렌드, 즉 글로벌 시대에 뒤쳐진 기업경영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과 해외(모국)투자전망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389	1.790		2.451	.018
행복1	.285	.203	.188	1.403	.167
행복2	-.289	.182	-.271	-1.592	.117
행복3	.107	.225	.085	.475	.637
행복4	-.005	.200	-.004	-.023	.982
<b>성별</b>	<b>1.185</b>	<b>.513</b>	<b>.336</b>	<b>2.311</b>	<b>.025</b>
영업연수	.013	.012	.150	1.112	.271
<b>태어난 곳</b>	<b>-1.185</b>	<b>.425</b>	<b>-.485</b>	<b>-2.787</b>	<b>.007</b>

거주기간	-.004	.011	-.066	-.376	.708
이미지변화	-.213	.183	-.240	-1.163	.250
재일코리안변화	.082	.336	.075	.244	.808
관심도변화	-.107	.254	-.102	-.422	.675
의식변화	.328	.304	.162	1.077	.286
한류영향1	.340	.296	.155	1.146	.257
<b>한류영향2</b>	<b>-.594</b>	<b>.261</b>	<b>-.372</b>	<b>-2.275</b>	<b>.027</b>

F=2.432(P=0.010), R<sup>2</sup> = 0.391

위의 <표 5>은 재일코리안 기업들의 기업계승여부와 모국투자, 혹은 해외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재일코리안 기업의 인적사항, 행복도, 한류문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재일코리안 기업의 모국투자 여부는 성별, 태어난 곳, 한류영향2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F=2.432(P=0.010), R<sup>2</sup> = 0.391).

구체적으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이 남성일수록, 태어난 곳이 한국일수록 모국(해외)투자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한류영향2는 재일코리안의 차별의식 약화, 긍정적 자기인식변화, 한국 귀속의식 등 일본 내 재일코리안의 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일코리안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재일코리안 기업가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가족으로부터 민족기업을 계승해나갈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류로 인한 한국의 국가이미지의 제고와 국가브랜드의 가치상승이 일본에 있는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에게 기업의 계속여부나 기업승계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재일코리안 기업들은 성공한 대기업과는 달리 소규모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불황과 일본대기업의 진출여파로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재일코리안 1세~2세, 특히 1960년대 이후 재일코리안1세들이 피땀 흘려 이루고 재일코리안2세들이 틈새산업에서 일하던 시대에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어느 업종이든 성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재일코리안3세~4세의 경우 일본 산업구조의 변화로 신산업의 창업을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더구나 일본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일코리안1세의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그나

마도 다행인데 이것조차도 현재로서는 특정 업종 이외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재일코리안 3대민족산업의 쇠퇴에 따라 폐쇄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일코리안이 종사하는 틈새산업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일코리안 기업의 미래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때 일본에서 번성했던 IT산업도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지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코리안 2세 기업가는 기업의 쇠퇴 이유에 대하여 글로벌시대 기존 민족산업의 고수와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부재의 탓이라며 돌파구로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기존 재일코리안 민족산업이라 부르는 업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 둘째, 기존 야끼니쿠산업에서 탈피하여 뉴커머중심의 한류산업과 한류식당의 틈새공략으로 새로운 민족산업 창출. 셋째, 39만명(민단 약 35만명, 총련 약 4만명)의 재일코리안 시대의 도래에 따른 민족기업의 생존전략의 전환 등을 심각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글로벌시대 일본의 경제불황 여파와 재일코리안 사회의 고령화로 인하여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승계의 실태를 고찰하고 기업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일본 동경에 거주하고 재일코리안 기업가(올드커머 및 뉴커머)를 모집단으로 하여 비확률표본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동경에 위치한 재일한국상공회의소와 재일한국인연합회 등지에 부탁하여 기업가를 중심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의 차이분석결과, 남성이면서 출생지가 한국이고 고학력자일수록 재일코리안 2세~3세들에게 기업을 계승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과 모국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해외투자를 예상하고 모국투자의 경험이 있는 기업가일수록 기업계속여부와 자영업계승정도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일코리안 기업가가 다각적 경영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계승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간의 회귀분석결과,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후계자 결정여부는 행복도, 한류문화 영향과 무관하지만 응답자의 인적사항인 태어난 곳과 거주기간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출생 장소가 거주기간보다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승계 정도와 모국투자전망과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기업가의 성별이 남성일수록, 태어난 곳이 한국일수록 모국투자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영향<sup>2</sup>는 재일코리안의 차별의식 약화, 긍정

적 자기인식변화, 한국 귀속의식 등 일본 내 재일코리안의 위상을 의미하며 재일코리안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재일코리안 기업가도 계속해서 일본 내에서 민족기업을 계승해나갈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동경거주 재일코리안 기업가만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재일코리안 기업의 후계자 계승문제가 재일코리안1세의 정체성, 정보격차, 해외(모국) 투자, 한류영향과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재일코리안 기업의 생존 전략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즉 재일코리안 기업의 글로벌전략과 정보소통이 현재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3대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시대 기존 민족산업 그대로는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권의 기업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재일코리안 산업도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되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승계는 재일코리안 1세~2세에서 재일코리안 3세~4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대교체가 빨라짐에 따라 민족산업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류가 재일코리안의 대체산업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시대 일본국적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한 몇몇 재일코리안 기업들은 탁월한 기업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자영업 수준인 재일코리안 기업은 제한된 업종에서 시대의 변화와 조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정보격차 현상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실상이다.

최근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의 일본국적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정체성의 쇠퇴는 민족경제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민족교육도 학생 수의 급감으로 폐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재외국민선거는 홍보부족으로 재일코리안의 등록률이 1%도 못 미치는 예상 밖의 저조를 보였다.

주된 이유는 재일코리안들이 재외국민선거를 위한 등록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호간 정보단절현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시대 재일코리안 사회의 정보소통의 문제는 재일코리안 사회의 발전과 민족기업의 회생을 위해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参考文献】

- 고광명·진관훈(2005) 「제주도 기업가 晴岩 朴宗實 연구」 『정신문화연구』 28(2), pp.3-31.
- 고광명(2006) 「일본 속의 제주인의 직종과 상공업 활동」 『아시아연구』
- 고광명(2009)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 『일본연구』 pp.1-21.
- 고광명(2010) 「재일, 在日제주인 기업가 東泉 金坪珍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pp.1-19.
- 고광명(2010) 「재일(在日) 제주인의 기업가 유형별에 따른 경영특성」 『아시아연구』 pp.1-19.
- 고광명(2010) 「재일, 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 『일본근대학연구』 pp.1-26.
- 고광명(2011) 「재일(在日) 제주인의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 『교육과학연구』 23, pp.59-73.
- 고광명(2011)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고당(古堂) 안재호(安在祐)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pp.1-20.
- 김희철·고광명(2005) 「제주도 기업가 우공(牛公) 황순하(黃舜河) 연구」 『제주도연구』
- 金泰永(2005)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과 기업가정신」 『일본문화학보』 27, pp.317-342.
- 김태영(2005)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기업가 정신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237-241.
- 김태영·박재수(2006)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상황구조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30, pp.353-371.
- 김태영·박재수(2007) 「재일한국인의 기업가정신」 『일본문화학보』 33, pp.237-257.
- 백형엽(2006) 「재일동포 자영업체의 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 조현미(2007) 「재일한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직업과 민족간의 유대관계 -오사카 이쿠노구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 재외동포재단(2008) 『모국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年 足跡』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 임영언·이석인(2006) 「재일코리아인 기업가의 창업유형별 특징 및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 임영언·나주몽(2008) 「재일한인의 국적별 네트워크 구축 성향연구」 『韓國東北亞論叢』 第13卷3号 (通卷48集), pp.175-191.
- 임영언 (2007)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 연구」『일본문화학보』 34, pp.635-651.
- 임영언·천관희(2007)「재일코리안 기업의 자원동원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한국동북아논총』
- 임영언·나주몽(2007)「과칭코산업을 통해 본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에 관한 실증분석」『일본문화학보』 35, pp.171-192.
- 임영언(2009)「재일한인 기업가와 모국」『일본 한인의 역사(상)』
- 吳圭祥(1992)『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東京：雄山閣。
- 吳民學·金哲秀(1996)「統計に見る在日朝鮮商工人數に關する研究」『同胞經濟』第5号(夏)：34。
- 河明生(1998)『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精神：在日韓人事例研究』東京：ITA。
- 徐龍達·金在文(1987)「在日韓國朝鮮人の商工業の實態」『韓國朝鮮人の現狀と將來』社會評論社。
- 東京韓國青年商工會(1988)『靑商：望ましい未來をみざして』10周年記念誌編集委員會。
- 在日韓國青年商工人連合會(1995)『靑商：豊かな地域社會の創造をみざして』設立15周年記念誌。
- 在日本大韓民國民團(1997)『民團五十年史』民團50年史編纂委員會。
- 朴一(2002)『在日コリアンの經濟事情』第11卷、環、pp.247-251。
- 林永彦(2008)「재일한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연구」『日本文化學報』第36集, pp.339-358.
- 林永彦·李錫寅(2011)「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일본문화학보』 48, pp.301-323.
- 梁京姬(2009)「在日企業家が韓國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現代韓國朝鮮研究』第9号
- 崔錫信·林永彦(2006)「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한국 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pp.211-239.
- 在日韓國青年連合會(1989)『在日韓國商工人の現狀と課題をさぐる—靑商連合會アンケート調査結果から—』育英出版社、pp.28-43。

## 要旨

本研究の目的は、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日本の経済不況と在日コリアン社会の高齢化によって世代交代が激しい在日コリアン企業を対象に企業継承の実態を考察し、後継者の決定(要因)に与える要因を調べることである。調査対象は、東京に住んでいる在日コリアン企業家を母集団として、非確率標本のサンプリング方法を活用して標本を選んだ。質問紙の収集には、東京にある在日韓国商工会議所と在日韓国人連合会の協力を得て、企業家を対象に調査を行った。調査分析の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

在日コリアン企業家の後継者継承の程度と人口統計学的な変数間の差異分析の結果、企業家が男性であり、韓国出身で、学歴が高いほど企業継承には積極的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

在日コリアン企業の企業継承と母国投資との関係では相関分析の結果、海外投資を考えている企業家ほど母国投資の経験があり、その場合、企業継承や自営業の継承意志が強かった。さらに、在日コリアン企業家が多角的な経営を考慮している場合、企業の売上は延びると予想していた。

在日コリアン企業の後継者継承の程度と人口統計学的な要因間の回帰分析結果、後継者決定の程度は企業家の幸福度、韓流文化の影響とは無関係であったが、企業家の出身国と居住年数とは正の関係であった。

次に、在日コリアン企業の企業継承と母国投資との回帰分析結果、企業家の性別が男性であり、生まれた場所が韓国であるほど、母国投資に関する期待と展望が大きかった。韓流の影響については在日コリアンの差別意識が弱くなり、肯定的な自己認識の増加、韓国帰属意識の増加など、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イメージが肯定的であるほど在日コリアン企業家も企業継承の意志が強いことがわかった。

本研究は、東京に居住している在日コリアン企業家を対象に調査した結果であるため、これを企業家全体に一般化するには様々な限界がある。しかし、研究結果として在日コリアン企業の継承問題が在日コリアン1世のアイデンティティ、情報格差、母国投資、韓流などと関係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点で、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在日コリアン企業、企業継承、後継者継承、母国投資、韓流  
アイデンティティ、情報格差、在日コリアン社会

투 고 : 2012. 11. 30

1차 심사 : 2012. 12. 15

2차 심사 : 2013. 1. 5